

Global Goings-on

미국

미국의 실업, 전과 같지 않아 Joblessness in America: A stickier problem

더 복잡해진 실업문제

▶ 미국의 실업

- 미국 경제는 일년 전부터 안정되기 시작했으나 실업률은 7월 9.5%로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을 감안하면 현 실업률은 훨씬 높을 수도 있어
- 실업자 중 45%는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이며 최근 실업수당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현 상황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

▶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?

- 정책입안자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경기진작

을 위해 자금을 더 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

-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붕괴의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과 구직자들간의 수요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.
- 구입한 집의 가치보다 모기지론으로 갚아야 할 빚이 더 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쉽게 이동할 수 없고 건설과 제조업에 종사하여 얻은 중급, 저급 기술은 더 이상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이 아님.

▶ 미국의 노동시장이 비효율적이란 말은 결국 미국의 “구조적” 혹은 “자연적” 실업률이 더 높아졌다는 말

- IMF에 따르면 미국의 구조적 실업률은 5%에서 6~6.7% 상승, 즉 미국 실업률 상승의 33% 정도가 경기변동에는 상관없으며 따라서 수요를 진작한다고 떨어질 수 있는 실업률이 아니라는 말
- 따라서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함.

▶ 두 가지 제안

- “마이너스 자산”이라는 늪에 빠진 미국민들의 빛을 조정해 주려는 정부의 확고한 노력이 필요
- 실업자들에 대한 장기적 실업수당 지원보다는 구직을 권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, 변화된 실업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마련

▶ 경기진작과 함께 구조적 노력 필요

- 경기회복의 속도는 실업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식량배급소의 줄을 줄이지는 못할 것

2010년 8월 28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 링크: 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16888999?story_id=16888999〉

유럽

유럽복지국가, 지속 가능한가?

Can the European Welfare State Survive?

- ▶ 유럽을 특징짓는 이상 중 하나는 유럽의 사회복지시스템으로 EU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“국가는 시민의 복지에 책임을 진다”는 신념은 EU 27개국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문화가 되어 음. 그러나 세계 2

차 대전 이후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형성된 유럽의 복지시스템이 현재 경제적, 인구구조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의 부채위기는 유럽이 공유하는 사회비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

- 나라마다 복지모델과 수혜의 수준은 차이가 있지만 EU는 전체적으로 관대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상진료, 장기실업지원, 관대한 휴가기간, 실속 있는 모성 및 아동 케어를 누리며
-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정치분석전문가인 Dominique Moisi 씨는 “유럽의 복지시스템은 유럽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. 적어도 사회인문분야에선 유럽이 갖고 있는 위대한 비교우위가 아닐까 한다. 유럽복지국가는 경제위기 시 유럽인들을 미국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.”라고 말해

- 이에 대해 인기 있는 프랑스 비즈니스 채널에서 경제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Nicolas Doze씨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획기적인 개혁이 없이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EU의 비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, “프랑스의 사회복지시스템만 무려 1조 유로 이상의 부채를 축적해 왔으며 이 상태를 더 이상 지탱하기란 불가능하다. 오늘까지 시스템이 여전히 지탱되어 온 이유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위해 돈을 빌릴 수 있는 프랑스의 신용도 AAA의 능력 때문이었다. 그리스의 부채위기로 유럽 정부들이 지난 10주간 줄인 사회적 지출은 지난 10년간 줄인 사회적 지출보다 더 컸

다. 시장이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는 상황에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.”

▶ 실제 독일에서부터 스페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부채와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과 사회적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어

- 독일인들은 사회적 지출의 축소에 화가 나 있고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Nicolas Sarkozy 대통령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려는 계획에 저항하여 거리로 뛰쳐나와

▶ EU 사회적 지출의 큰 부분이 실업수당, 연금제도와 같은 노동시장정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OECD의 경제학자 Willem Adema 씨는 밝혀, “노령화하는 인구와 수명의 연장,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퇴직연금 개시 연령을 올리고 있다. EU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인데, 이로 인해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다.”

- 이 가운데 덴마크의 Flexicurity System이 주목을 받고 있어, 이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이를 받쳐주는 관대한 정부의 실업지원이 합쳐진 시스템으로 다른 EU 국가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어

▶ 덴마크인들과 유럽인들은 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믿고 있으나 유럽의 사회모델을 보존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받아들여지고 있어

- 유럽인들 중 미국식의 시장의존형 복지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, 이들은 미국의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몰락한 연금기금으로 인해 다 잃어버린 것과 실업자들이 집과 의료보험을 잃어버린 것을 놀란 심정으로 지켜 봤음

▶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와 둔화된 경제 성장으로 EU를 지탱해 온 세 가지 기둥 - 평화, 성장, 공통의 사회적 비전 - 중 하나가 무너진다면 과연 나머지 둘도 지탱될 수 있을까?

2010년 7월 14일 / National Public Radio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npr.org/templates/story/story.php?storyId=128485416>〉

수면 부족은 우울증, 체중 증가, 심지어 사망까지 불러 올 수 있어 Lack of Sleep Linked With Depression, Weight Gain and Even Death

▶ 수면이 부족할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

- Penn State Study가 1,74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면 장애가 있는 남성이 일반인보다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

- 비만, 알코올 섭취, 우울증 등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조건을 통제하고 나온 결과여서 더욱 충격적임.

- 그러나 수면 부족이 여성의 사망률에는 영

향을 미치지 않아

▶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청소년은 장기적인 심리적 장애를 겪게 돼

- University of Sydney가 17~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2~18개월 추적 연구한 결과 부족한 수면시간 1시간마다 심리적 장애 수준이 5%씩 증가하는 것을 발견
- 평균적으로 잠을 짧게 자는 청소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장애 증상을 보일 확률이 14% 높은 것으로 나타나
- 특히 수면부족은 우울증, 양극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
-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밤늦게까지 잠에 들지 않는 요즘 청소년들의 세대를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

▶ 잠을 적게 잘수록 살이 찐다?

- Sleep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잔 사람에 비해 열량을 더 많이 섭취해
- 18세 청소년 2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중 매일 8시간 미만으로 잔 청소년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청소년에 비해 지방으로부터 2%, 탄수화물로부터 3%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
- 결국 비만과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킴.

▶ 매일 밤 7~8시간은 자야

-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은 성인의 경우 매일 밤 평균 7~8시간은 수면을

취해야 한다고 권하며 청소년에 대한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권고 수면시간은 8.5시간

- 수면장애는 매우 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보건전문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British Association of Psychopharmacology의 Sue Wilson 박사가 밝혀

▶ 정확한 수면 장애 진단을 통한 정확한 처방 필요

- 수면 장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처방전을 내리기 전 행동치료를 통해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

▶ 당신도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다음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라

- 카페인을 멀리하라: 차, 커피, 탄산음료, 에너지 음료 등을 마시면 무려 12시간이나 잠에 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잠이 쏟아질 때는 땅콩이나 요구르트 같은 간식을 선택할 것
- 안락한 침실
- 취침 전 행동: 취침하기 세 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말고 취침 직전에 스크린을 보지 말 것, 독서나 목욕 등 피로를 풀 수 있는 규칙적인 행동을 하라

2010년 9월 2일 / TIME

〈원문링크: <http://wellness.blogs.time.com/2010/09/02/lack-of-sleep-can-cause-depression-weight-gain-and-even-death/>〉